

야구

6

2018년 8월 9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두산 박치국의 V 욕심 더 많이 앞서가고 싶다



박치국

“더 잘 할 수 있어요. 더 이겨야죠.”

두산 베어스 박치국(20)은 매 경기를 마치고 난 뒤 항상 ‘더, 더, 더’라는 말을 자주 남긴다. 이제 프로에 입문한 지 2년 차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선수지만 야구에 대한 욕심은 웬만한 베테랑 선수만큼이나 강하다.

박치국은 7일까지 올 시즌 55경기에 나섰다. 2018 KBO리그에 참가한 투수들 중 가장 많은 등판 숫자다. 성적은 1승 5패 14홀드 3세이브, 평균자책점도 3.39로 준수하다. 매 번 제 몫을 하다 보니 코칭스태프의 중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많은 경기를 나가는 것에 지칠 만도 하지만 그는 언제나 “괜찮다”고 말한다. 누구보다 절실하게 마운드에 서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다. 박치국은 7일 “한 경기라도 지면 다음날까지 계속 마음이 불편하다. 우리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패배로 격차가 줄어들면 쫓기는 기분이다. 더 많이 앞서 가고 싶다”고 말했다.

체력 역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 여름이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에 폭염의 절정을 한번 겪고 나니 지금은 오히려 조금 시원해진 느낌이 들더라. ‘가을’이 가까워 질수록 더 잘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팀 승리에 있어서는 아직 만족을 모르는 박치국이다. 과연 올 시즌 말미에는 처음으로 만족감을 드러낼 수 있을 지, 그의 남은 시즌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잠실** |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베이스볼 피플 | 삼성 강민호의 가을야구 향한 집념



이제는 푸른 유니폼이 어색하지 않은 삼성 라이온즈 포수 강민호는 전반기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만큼 후반기 반등을 향한 의지는 강하다. 강민호는 “가을야구 진출을 통해 전반기 아쉬움을 메우겠다”며 각오를 불태웠다.

스포츠동아DB

“후배 투수들 쑥쑥…가을야구 문제없다”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던 푸른색 유니폼이 반 시즌 만에 완벽히 자리 잡았다. 14년간 몸담은 롯데 자이언츠를 떠나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은 첫 해, 강민호(33) 없는 삼성을 떠올리기는 어려워졌다.

강민호는 올 시즌에 앞서 4년 80억원의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맺었다.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나온 가장 놀라운 이적이었다. 삼성은 “국가대표 포수 강민호의 존재는 젊은 투수진의 안정 효과를 안겨줄 것”이라고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년간 9위에 머물렀던 삼성의 최대 고민은 마운드였다. 2016년 5.64(8위)였던 팀 평균자책점은 2017년 5.88(10위)까지 떨어졌다. 왕조를 이끌었던 이들은 노쇠해가는 반면 영건들의 성장은 더뎠다. 이들의 성장의 기폭제로 경험 많은 강민호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이 었다.

효과는 단번에 나타났다. 삼성은 8일까지 팀 평균자책점은 5.07(5위)다. 7월 이후 27경기로 범위를 좁히면 3.74까지

항상 승부 강조…안타 맞으면 내 탓
팀 ERA 5.07…젊은투수 성장 뿌듯
우리 투수들 10구단서 뒤지지 않아



떨어진다. 같은 기간 리그 2위에 해당하는다. 선발진의 양창섭과 불펜진의 심창민과 최충연 등 젊은 투수들이 일궈낸 성과라 더욱 값지다. 강민호가 95경기 타율 0.272, 19홈런, 58타점으로 타석에서도 힘을 보태니 효과는 만점이다.

7일 인천 SK 와이번스전을 승리로 이끈 뒤 만난 강민호는 이러한 평가에 손사래를 쳤다. 그는 “타격은 처음부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내가 매 시즌 타율 3할을 넘기는 타자가 아니지 않나. 그저 포수로서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잘 치면 좋겠지만 못 쳐도 아쉬움은 덜하다”고 선을 그었다. 바뀐 얘기하면, 포수로서 팀 마운드의 안정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는 만족한다는 의미다. 그는 “팀 평균자책점이 좋아지고 있는 것에 자부심이 있다. 우리 팀 투수들은 10개 구단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는 스프링캠프 때부터 삼성 젊은 투수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그때부터 지

금까지 그가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 배짱이다. 그는 “변화구보다 속구 위주의 사인을 내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다. 동생들에게 ‘승부를 피할 순간이 오면 그랜내가 사인을 내겠다. 그 전까지는 나를 믿고 승부해라. 그러다 안타를 맞으면 내 잘못’이라고 강조한다. 이제 조금씩 호흡이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말미, 강민호에게 ‘전반기 점수’를 스스로 매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매길 것이 어디 있나. 창피한 수준이다. 그냥 0점으로 해달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웃으며 말하지만 책임감과 반성이 담긴 내용이다. 당연히 0점짜리 선수로 남고 싶을 리는 없다. 삼성은 4위 LG와 1경기, 5위 넥센과 0.5경기 차를 유지 중이다. 가을야구 레이스를 펼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민호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그는 “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한다면 내 점수는 확 달라질 것이다. 그걸로 전반기 아쉬움을 다 메우고 싶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인천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7월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수	승	패	무	승률	경기 연속 타율	평균자책점	홈런	득점	실점	홀런	도루	실책
1	두산	105	69	36	0	0.657	-	1승 0.309	5.03	0.740	673	550	137	64
2	S K	104	59	44	1	0.573	9.0	1패 0.284	4.23	0.620	589	477	173	80
3	한화	107	59	48	0	0.551	11.0	3패 0.275	4.65	0.604	530	534	100	94
4	L G	108	53	54	1	0.495	17.0	6패 0.298	5.11	0.585	598	591	116	60
5	넥센	110	54	56	0	0.491	17.5	4승 0.284	4.93	0.439	606	578	125	78
6	삼성	108	51	54	3	0.486	18.0	2승 0.289	5.07	0.490	567	590	100	82
7	K I A	103	48	55	0	0.466	20.0	1패 0.292	5.16	0.574	578	562	118	64
8	롯데	104	46	56	2	0.451	21.5	1승 0.288	5.25	0.463	581	601	140	46
9	K T	105	44	59	2	0.427	24.0	1승 0.274	5.39	0.440	535	609	151	61
10	N C	108	43	64	1	0.402	27.0	1패 0.254	5.42	0.411	451	616	95	65

Before & After 7-Game

팀	29일	31화	1수	2목	4토	5일	7화	8수	9목	10금	11토	12일	14화	15수
K I A	㉠	㉡	㉢	㉣	㉤	㉥	㉦	㉧	㉨	㉩	㉪	㉫	㉬	㉭
두산	㉮	㉯	㉰	㉱	㉲	㉳	㉴	㉵	㉶	㉷	㉸	㉹	㉺	㉻
롯데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N C	㊊	㊋	㊌	㊍	㊎	㊏	㊐	㊑	㊒	㊓	㊔	㊕	㊖	㊗
S K	㊘	㊙	㊚	㊛	㊜	㊝	㊞	㊟	㊠	㊡	㊢	㊣	㊤	㊥
L G	㊦	㊧	㊨	㊩	㊪	㊫	㊬	㊭	㊮	㊯	㊰	㊱	㊲	㊳
넥센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	㋁
한화	㋂	㋃	㋄	㋅	㋆	㋇	㋈	㋉	㋊	㋋	㋌	㋍	㋎	㋏
삼성	㋐	㋑	㋒	㋓	㋔	㋕	㋖	㋗	㋘	㋙	㋚	㋛	㋜	㋝
K T	㋞	㋟	㋠	㋡	㋢	㋣	㋤	㋥	㋦	㋧	㋨	㋩	㋪	㋫

○=승 ●=패 □=무 *=출경기

※ '프로야구 기록실'이 신문제작 시간관계로 일부 게재되지 못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프로배구

2018 보령·한국도로공사 여자프로배구 경기결과

현대건설 0 3 흥국생명

21~25
19~25
11~25

메이저리그

(8월)

●아메리칸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보스턴	80	34	1	클리블랜드	62	50	1	휴스턴	73	42
2	뉴욕Y	70	42	2	미네소타	53	59	2	오클랜드	67	47
3	탬파베이	57	56	3	디트로이트	47	67	3	시애틀	65	49
4	토론토	51	61	4	시카고W	41	72	4	LAA	57	58
5	볼티모어	34	79	5	캔자시티	34	79	5	텍사스	50	65

●내셔널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필라델피아	64	49	1	시카고C	66	47	1	LAD	63	51
2	애들랜타	61	49	2	밀워키	65	51	2	애리조나	63	52
3	워싱턴	58	55	3	St.루이스	59	55	3	콜로라도	60	53
4	뉴욕M	46	65	4	피츠버그	58	56	4	샌프란시스코	57	58
5	마이애미	47	68	5	신시내티	50	64	5	샌디에이고	45	70

●타격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타 율		홈 런		타 점	타 율		홈 런		타 점		
① 벅츠 (보스턴)	0.341	① 마르티네즈 (보스턴)	34	① 마르티네즈 (보스턴)	97	① 엘리치 (밀워키)	0.323	① 카펜터 (St.루이스)	30	① 바예즈 (시카고C)	88
② 알투브 (휴스턴)	0.329	② 라미레즈 (클리블랜드)	33	② 데이비스 (오클랜드)	88	② 마카리스 (애들랜타)	0.323	② 아레나도 (콜로라도)	29	② 수아레스 (신시내티)	87
③ 마르티네즈 (보스턴)	0.328	③ 데이비스 (오클랜드)	32	③ 라미레즈 (클리블랜드)	83	③ 프리먼 (애들랜타)	0.315	③ 아벨라 (밀워키)	27	③ 아레나도 (콜로라도)	81
④ 마차도 (볼티모어)	0.315	④ 코루즈 (시애틀)	30	④ 한카사온 (클리블랜드)	80	④ 제넷 (신시내티)	0.314	④ 하퍼 (워싱턴)	27	④ 스톡리 (콜로라도)	79
⑤ 트라웃 (LAA)	0.309	⑤ 트라웃 (LAA)	30	⑤ 코루즈 (시애틀)	72	⑤ 조브라스트 (시카고C)	0.313	⑤ 수아레스 (신시내티)	26	⑤ 아벨라 (밀워키)	79

●투수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다 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다 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① 포셀로 (보스턴)	14	① 세일 (보스턴)	2.04	① 세일 (보스턴)	207	① 포셀로 (보스턴)	14	① 세일 (보스턴)	2.04	① 세일 (보스턴)
② 클루버 (클리블랜드)	14	② 발렌타 (휴스턴)	2.19	② 바우어 (클리블랜드)	206	② 클루버 (클리블랜드)	14	② 발렌타 (휴스턴)	2.19	② 바우어 (클리블랜드)
③ 세베리노 (뉴욕Y)	14	③ 바우어 (클리블랜드)	2.25	③ 발렌타 (휴스턴)	204	③ 세베리노 (뉴욕Y)	14	③ 바우어 (클리블랜드)	2.25	③ 발렌타 (휴스턴)
④ 카라소코 (클리블랜드)	13	④ 스넬 (워싱턴)	2.27	④ 홈 (휴스턴)	202	④ 카라소코 (클리블랜드)	13	④ 스넬 (워싱턴)	2.27	④ 홈 (휴스턴)
⑤ 모튼 (휴스턴)	12	⑤ 클루버 (클리블랜드)	2.63	⑤ 맥스톤 (시애틀)	170	⑤ 모튼 (휴스턴)	12	⑤ 클루버 (클리블랜드)	2.63	⑤ 맥스톤 (시애틀)

●투수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다 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다 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① 서저 (워싱턴)	15	① 디고롬 (뉴욕M)	1.85	① 서저 (워싱턴)	216	① 서저 (워싱턴)	15	① 디고롬 (뉴욕M)	1.85	① 서저 (워싱턴)
② 그레인키 (애리조나)	12	② 서저 (워싱턴)	2.28	② 코빈 (애리조나)	174	② 그레인키 (애리조나)	12	② 서저 (워싱턴)	2.28	② 코빈 (애리조나)
③ 고들리 (애리조나)	12	③ 놀릭 (필라델피아)	2.37	③ 디고롬 (뉴욕M)	173	③ 고들리 (애리조나)	12	③ 놀릭 (필라델피아)	2.37	③ 디고롬 (뉴욕M)
④ 미라솔라 (St.루이스)	12	④ 미라솔라 (St.루이스)	2.74	④ 그레인키 (애리조나)	152	④ 미라솔라 (St.루이스)	12	④ 미라솔라 (St.루이스)	2.74	④ 그레인키 (애리조나)
⑤ 로드리 (클리블랜드)	12	⑤ 로드리 (클리블랜드)	2.89	⑤ 로드리 (클리블랜드)	150	⑤ 로드리 (클리블랜드)	12	⑤ 로드리 (클리블랜드)	2.89	⑤ 로드리 (클리블랜드)